

진화론과 근대영국*

-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작 -

문상화**

목 차

1. 들어가는 말: 진화론을 인문학으로 읽기
2. 진화론: 시대정신
3. 진화론이 근대영국사회 형성에 미친 영향
4. 맺는 말: 패러다임 시프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진화론이 영국근대사회 형성에 이바지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진화론은 개인의 과학적 발견이라기보다는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정신의 성격을 담고 있다. 진화론이 자연계에서 인간의 우월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근대에 들어오면서 영국사회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구조라는 기존의 질서체계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한다. 산업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으로 시작되는 근대 영국사회는 개인의 위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는 사회로 변화한다. 진화론의 자연의 수평구조에 대한 시각이 근대 영국인들이 추구했던 사회의 수평구조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진화, 진화론, 근대영국, 빅토리아 시대 영국, 패러다임 시프트, 다윈, 사회구조, 자연관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6A4A01019797)

**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진화론을 인문학으로 읽기

진화론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기본적인 형태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학문이다. 르네(Carl von Linné)¹⁾에 의해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동식물의 분류법부터 19세기 말 모라비아의 멘델(Gregor Mendel)의 유전자의 발견까지 길지 않은 학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화론의 핵심은 개별 생명체는 환경에 알맞게 진화²⁾해왔으며 각 생명체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학문의 분야는 주로 생물학과 관련된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진화론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찰스 다윈(Charles Darwin) 자신도 평생 스스로를 과학자로 생각했다는 사실처럼 진화론은 과학적 탐구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논지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시도의 핵심은 19세기의 진화론이 실험이나 수치를 이용한 객관적 사실의 증명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증거를 해석하는 담론이라는 것이다. 17세기에 시작된 과학혁명이 현미경같은 과학적 기구와 뉴턴(Isaac Newton)의 물리학법칙 같은 객관적 수식을 통해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서구에 널리 퍼졌지만, 진화에 관한 논의는 인간을 포함하는 동식물을 그 탐구 대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논의를 피할 수 없었다. 20세기 들어 과학적 기기의 발전으로 유전자, DNA,

1) 르네의 분류법은 동식물의 진화에 필수적인 시간에 관한 개념이 없다. 르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맨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외적인 특징에 따라 동식물을 분류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분류의 어려움과 임의성이 동식물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는데 진화론적 의미가 있다.

2) 진화(進化)라는 표현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에서 개체가 점점 향상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진화론은 개체가 변화는 방향을 진보와 퇴보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오직 개체가 어떻게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는가를 살피기 때문에 개체가 악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열등한 행태로 변했다하더라도 진화했다고 말한다.

RNA, 염기서열 같은 객관적 사실을 통해 진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과학적 지식은 진화론을 과학의 범주로 국한시키고 있다. 하지만 진화론이 생성되고 퍼져나가던 19세기는 진화론이 과학적 진실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실험을 통한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증거를 해석하는 해석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아 인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³⁾ 이에 대해 라이트맨(Bernard Lightman)은 “진화론적 사고에 몰입된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에서, 과학의 문화와 인문학의 문화는 반대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이다”(In a Victorian culture immersed in evolutionary thought, the culture of science and the culture of humanities were complementary rather than oppositional)라고 주장한다.(38-9)

인문학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학문으로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려는 자연과학에 대치된다. 따라서 진화론이 인문학의 연구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진화에 관한 논의가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담론이 필요하다. 인간도 자연세계를 이루는 한 가지 구성요소 이기 때문에 자연세계를 다루는 한 인간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진화론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진화론적 사실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첩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진화론을 인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한 근거를 우리는 리바인(George Levine)에게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다윈으로 대변되는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의 규명이 아니라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문분야이다.

그[다윈]의 책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제거하거나, 속이기 위해 고안된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재능의 심연으로부터 어떻게 이 세계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향한 길을 찾으려는 이야기이다.

3) 실제로 스펜서(Edmund Spenser)가 주장하는 사회적 진화론(Social Darwinism) 같은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저자의 주장이 강하게 포함된 사회적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His[Darwin's work] is a rhetoric designed not to displace rational discourse, not to deceive, but somehow, out of the depth of his own personal feeling and talents, to find its wa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the world really works. (Levine, 18)

또한 라이트맨도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리바인과 같은 편에 선다. “빅토리아 시대 문화의 수많은 기호학의 우주에서, 진화론은 단지 과학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보의 상징이다”(In a starry semiological universe of Victorian culture evolution was not merely a scientific theory. It was a symbol of humanity's progress.⁷) 이제 리바인과 라이트맨의 주장을 근거로 진화론을 살펴보자.

2. 진화론: 시대정신

서구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성경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은 자신을 본딴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지구상에 인간을 존재하게 했고 동식물을 창조함으로써 천지창조를 완성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서열을 매김으로써 인간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신시켰다. 이러한 존재의 사슬(The Great Chain of Being)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공고했던 고대 로마 이후 17세기까지 전 유럽에 걸쳐 당연히 여겨졌다. 이 개념이 18세기에 이르러 도전을 받기 시작했지만 도전의 내용은 생명체들 간의 위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 발견되는 종(species)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슬의 간격을 넓힘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즉 사다리의 최상위층에 자리 잡은 인간의 위치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새로 발견된 생물체는 기존의 생물체가 차지하고 있던 계층의 중간에 자리를 점하게 함으로써 사다리의 길이를 늘이는 모습을 하게 되었다.

교통기관의 발달과 과학기구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종의 발견은 오히려

인간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따라서 18세기 중엽까지 존재의 사슬에 대한 개념은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가보다는 기존의 가치관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충분의 원리에 따르면 존재의 사슬의 모든 연결고리는 단순히 그리고 일차적으로 다른 연결고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일련의 형태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신의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It was implied by the principle of plenitude that every link in the Chain of Being exists, not merely and not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any other link, but for its own sake, or more precisely, for the sake of the completeness of the series of forms, the realization of which was the chief object of God in creating the world. (Lovejoy, 186)

이러한 존재의 사슬에 대한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걸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르네 이후 뷔퐁(Georges Louis Leclerc de Buffon)에 이르러 식물의 분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종이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회의의 품게 된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표피 속에 숨어있는 뼈의 상이성과 상동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했던 뷔퐁은 기존의 분류체계가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르네와 뷔퐁은 18세기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 또한 18세기적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신에 의해 완전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인 모습이 변할 수 없다고 믿었다.

종의 변화에 관한 의미 있는 주장을 한 과학자는 라마르크(Chevalier de Lamarck)이다. 그는 1809년에 발표한 『동물학』(*Philosophie Zoologique*)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종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한다.

발전의 한계치를 넘어가지 않은 모든 동물에 있어, 어떤 기관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기관이 발전되고 확장된다. 따라서 그 기관이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힘을 갖게 된다.

반면에 어떤 기관을 영원히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기관은 약해지고 퇴화하게 되어 점진적으로 기관의 능력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

In every animal which has not passed the limit of its development, a more frequent and continuous use of any organ gradually strengthens, develops and enlarges that organ, and gives it a power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time it has been so used; while the permanent disuse of any organ imperceptibly weakens and deteriorates it, and progressively diminishes its functional capacity, until it finally disappears. (Oldroyd⁴⁾, 30)

모든 획득과 손실은 각 개체가 자리한 환경의 영향력과 어떤 기관의 현저한 사용과 영원한 불사용의 영향력을 통해 자연에 의해 개체에 일어난다. 획득형질이 암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혹은 적어도 자손을 생산하는 개체에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자손에 대한 재생산을 통해 보존된다.

All the acquisition or losses wrought by nature on individuals,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 in which their race has long been placed, and hence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predominant use or permanent disuse of any organ; all these are preserved by reproduction to the new individuals which arise, provided that the acquired modifications are common to both sexes, or at least to the individuals which produce the young. (Oldroyd, 31)

이른바 획득형질의 유전에 관한 위의 인용문은 당시의 비판자들로부터 조롱 섞인 비난⁵⁾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과 별도로 라마르크의 주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종의 가변성을 주장하고 있다

4) J. B. P. A. de Monet de Lamarck, *Histoire Naturelle de Animaux sans Vertebres*. (Paris, 1809). Oldroyd의 영역부분을 재인용.

5) 가장 대표적인 조롱은 백인 여자가 해안에서 선텐을 통해 갈색피부를 얻었을 경우 그 백인여자는 갈색피부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는 사실이다. 이는 신에 의해 창조된 개체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신의 존재 유무에 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주장이다. 개체의 필요에 따라 특정 부위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특정부위가 발달하거나, 불필요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기관이 퇴화, 소멸한다는 것은 신에 만든 완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과학계에서 라마르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라마르크의 이러한 주장이 담긴 『동물학』의 출판연대가 1809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초반의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고대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사회계층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변화했고 왕족과 귀족의 몰락과 중산계층의 약진은 기존의 가치관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 중세이후 자신의 위치에서의 자족을 강조하던 고전적인 가치관이 혁명을 통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옹호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주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진화론은 이러한 요구에 정확히 부응할 수 있었다. 자연에서의 개체가 환경에 따라 변화하면서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변하고 인간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⁶⁾

이러한 진화에 관한 주장은 바다 건너 영국사회에서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영국에서 진화에 관한 언급은 베이컨(Bacon)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⁷⁾) 정도이다. 그는 1802년에 출간된 『자연의 신전』(Temple of Nature)에서 동물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⁸⁾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과급효과가

6) 프랑스에서 진화론의 모태가 되는 박물학과 자연과학을 지원한 것은 박물관 혹은 과학 재단이라는 사실이 특기할만하다. 영국에서 진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들을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 유무가 진화론연구의 성향을 결정하였다.

7) 찰스 다윈의 형도 에라스무스 다윈이지만 진화론에 관해 언급할 때는 시인이자 과학자인 동시에 자연과학자였던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을 말한다.

8) Darwin, Erasmus. *The Temple of Nature*. (London: Jones & Company, 1825) p.14.

크지 않은 상태로 잊혀졌고 진화에 관한 주장은 챔버스(Robert Chambers)에 의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⁹⁾ 에딘버러의 출판업자였던 챔버스가 1844년에 발표한 『창조의 자연사 흔적』¹⁰⁾(*Vestiges of the Natural History of Creation*)은 독일 자연철학자들의 우주진화론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윈(Charles Darwin)이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에서 제시할 충격적 주장을 완화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챔버스는 『흔적』에서 성운의 가설에 따른 태양계의 진화와 살아있는 육체의 진화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두 가지 주제는 진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든 삼라만상의 불변양태와는 거리가 있다.

챔버스의 주장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생명체의 진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는 크로스(Crosse)라는 사람이 행한 실험을 언급하면서 칼륨과 구리의 혼합물에 전기를 가하면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생명체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네 개의 부류의 태아 혹은 짝은 한 점 A에 대한 이상적인 조건을 향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서 어류는 다양화되고 다른 방향 F로 진행한다.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동물은 다른 점 C를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서 포유류는 여러 형태로 진행하여 다른 점 R을 향해 나아간다. 조류는 다른 점 D에서 분화하여 B를 향해 나아간다. 포유류는 M에 도달할 때까지 진화하여 가장 높은 위치에 다다른다.

The forms of all the four classes may be supposed to advance in an identical condition to the point A. The fish there diverges and passes along a line apart, and peculiar to itself, to its mature state at F. The reptile, bird, and mammal, go on together to C, where the reptile diverges in like manner, and advances by itself to R. The bird diverges at D, and goes on to B. The mammal there

9) 챔버스가 자신의 책이 가지는 도발적인 주장의 폭발력을 예견해서 익명으로 이 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저자를 밝히려는 노력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10) 이후 『흔적』으로 약칭함.

goes forward in a straight line to the highest point organization at M.

(Chambers, 212)

위와 같은 『혼적』의 주장은 19세기 영국의 주류신학과 상치되었기 때문에 신랄한 비난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의 유명한 지질학 교수 세그윅(Adam Sedgwick)의 다음과 같은 서평은 19세기 보수적인 영국인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이 책이 사실이라면 성실한 귀납적 노력은 무의미한 일이다. 종교는 거짓말이고 인간들의 법은 바보들의 모임일 뿐이다. 도덕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미친 사람들의 작업이고 인간 여성과 남성은 단지 좀 더 나은 짐승에 불과하다.

If the book be true, the labours of sober induction are in vain; religion is a lie; human law is a mass of folly, and a base injustice; morality is moonshine; our labours for the black people of Africa were words of madmen; and man and woman are only better beasts!

(Clark, 84)

챔버스의 주장이 당시의 기준으로 도발적이기는 했지만 1859년에 다윈이 가져 올 충격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더 컸다.

진화론하면 떠오르는 다윈은 사실 처음 지질학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그에게 영향을 미친 책은 1830년 라일(Charles Lyell)에 의해 발간된 『지질학 개론』(*Principles of Geology*)이다. 지구의 형성을 탐구하는 이 책은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일정한 물리적 법칙이 변함없이 지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노아의 홍수 같은 지질학적 격변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격변설이 아닌 균일설을 주장한 라일은 지구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형도 무정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천지가 창조된 이래 신의 의지에 따라 지구의 모습이 변해왔다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라일의 주장을 받아들인 다윈은 1832년 비글(H.M.S. Beagle)호를 타고 남미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일주를 시작한다. 당시 영국해군은 남미의 해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배에 관례에 따라 과학자를 승선시킨 것이다. 비글호가 칠레 해안의 갈라파고스(Gallapagos) 군도에 정박하는 동안 다윈은 같은 종류의 새들이 서식지에 따라 조금씩 변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작고 밀접하게 관련된 새들의 무리에서 구조의 다양성과 점진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섬의 새들이 소수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다른 형태로 수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Seeing this gradation and diversity of structure in one small, intimately related group of birds, one might really fancy that from an original paucity of birds in this archipelago, one species had been taken and modified for different ends. (Voyage, 280)

미래에 발간될 『종의 기원』의 핵심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이 문장에서 다윈은 진화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암시하고 있다.

영국에 돌아온 다윈은 자신의 수집물과 기록을 통해 진화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던 중 동인도에서 일하던 무명의 과학자로부터 『새로운 종의 도입을 규정짓는 법에 관하여』“On the law which has regulated the introduction of new species”라는 짧은 논문의 평가를 의뢰받는다. 이는 윌러스(Alfred Wallace)라는 이름의 과학자가 자연선택을 통한 유기체의 진화에 관한 이론을 다윈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진화에 관한 생각에 다윈 혼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종의 기원』의 원제는 『자연 선택의 도움에 의한 종의 기원 혹은 생존경쟁에 유리한 종족의 보존』(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라는 긴 구절이다. 다윈의 주장은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종은 자연선택¹¹⁾의 도움을 받아 종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 종이 새로운 종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윈은 주장은 『종의 기원』의 첫 4장 「인간의 사육 하에서의 변종」(“Variation under Domestication”), 「자연 상태에서의 변종」(“Variation under Nature”), 「생존경쟁」(“Struggle for Existence”) 그리고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서 다양한 사례와 수많은 사람들과 서신을 통해 길게 설명되고 있다. 다윈은 편지교환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진짜로 베이컨의 원리에 따라 작업했다. 대규모로 수집된, 사실에 기초한 이론이 없었다면, 더 자세히 언급하면, 사육동물에 관련된 믿을만한 기록이 없었다면, 능력있는 사육사와 정원사와의 대화가 없었다면, 그리고 다양한 독서가 없었다면... 내 이론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I worked on true Baconian principles, and without any theory collected fact on a wholesale scale, more especially with respect to domesticated productions, by printed enquiries, by conversation with skillful breeders and gardeners, and by extensive reading. (Autobiography, 141)

다윈과 윌러스가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독립적인 방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발견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두 사람의 발견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없다.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지적인 환경이 새로운 사상의 도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현상을 머튼(R. K. Merton)은 “거의 예외 없이 다수의 발견은 규칙에 해당되는 어떤 과학적 설명이 기정사실화 되면, 의미 있는 숫자의 연구가

11) natural selection은 종종 ‘자연도태’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다윈의 주장을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연선택’이 적절해 보인다. 이때 선택이라는 용어는 선택의 주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다윈이 피하려고 했던 신(God)의 위상을 자연에게 부과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Robert Young의 『다윈의 플롯』(Darwin's Plot)을 참조할 것.

그 분야에서 진행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¹²⁾ 그에 따르면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의 독창성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둘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다윈과 월러스의 경우처럼 둘 사이에 상당한 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포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학적 주장을 할 수 있었다.

진화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신을 정점으로 하는 존재의 사슬을 부정하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며 이 법칙은 모든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진화론의 핵심주장은 기존의 기독교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것이다. 완전체로서 신에 의해 창조된 후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창조론은 환경에 의해 변화한다는 진화론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종(種)이 등장하고 소멸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신의 존재유무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기독교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존재의 사슬이 주장하는 생명체의 수직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생명체는 수평질서를 가진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 결국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연결되는 주장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19세기 초반에 자연과학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나 월러스 같은 사람들이 자연선택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의 영국 사회전체가 이러한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은 자유 무역의 미덕과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생존경쟁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것들이 두 사람의 이론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윈과 월러스의 주장이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12) Merton, Robert K. *The Sociology of Scienc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p.264.

되어 왔던 유심론적 가치기준이 산업의 발달과 정보의 확산을 통해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중심의 가치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커져갔고 그러한 과정에서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졌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적 분위기 하에서 동식물들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 자연선택이라는 결과물을 추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진화론은 한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속한 사회의 담론이며 이러한 담론은 역으로 그 담론을 생성시킨 사회에 영향을 미쳐 그 사회에 이전의 사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사회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진화론의 탄생 배경이 되었던 영국의 근대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속의 어떠한 용인들이 진화론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밝힌다.

3. 진화론이 근대영국사회 형성에 미친 영향

근대영국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기 어렵다. 멀리는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이 중세의 엄한 규율에 저항해서 개인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시점¹³⁾부터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는 빅토리아 여왕의 서거를 근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문학에서는 1832년의 제1차 선거법 개정을 빅토리아 시대 문학의 시발로 보는 것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도 선거법의 개정과 빅토리아 여왕의 등극을 즈음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자 한다.

13) 그린블랫은 『일탈』(*The Swerve: How the World Became Modern*)에서 1417년을 근대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근대 영국사회는 이전의 영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 구조를 가진다. 중세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였다. 1차 산업을 바탕으로 모든 경제의 중심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그 위에 가치기준과 사회구조가 확립되었다. 14세기 흑사병의 창궐로 상당수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계도 농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당시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귀족과 평민으로 형성된 사회였다.

산업화 이전의 문명사회처럼 산업혁명초기의 영국사회는 무엇보다도 귀족사회였다. 즉 계급사회였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선조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자신의 위치를 인정했다. 그 모습은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로부터 아래로- 더 크고 더 가난한 계층의- 가난하고 힘없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형태였다.

Like most pre-industrial civilized societies, English society on the ev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first of all an aristocracy, a hierarchial society in which men took their places in the accepted order of precedence, a pyramid stretching down from a tiny minority of the rich and powerful through ever-large and wide layers of lesser-wealth and power-to the great mass of the poor and powerless. (Perkin, 17)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구조 속에서 귀족은 대지를 상속받아 평민들에게 소작지를 대여함으로써 농촌경제를 유지했다. 또한 농토를 빌려주는 자로써 귀족은 자신의 농토를 경작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평민들은 농작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분을 귀족에 제공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온정주이라고 불리는 농토를 매개로 이런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는 중세 이래 계속된 영국의 전통이었다.

초기 빅토리아 시대에 어떤 사회적 현상도 20세기에 온정주의라고 부른 것보다 넓고 깊게 퍼져있는 것은 없었다. … 온정주의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태도를 취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그 것을 표현했다. 온정주의는 넓고 인기가 있었던 것 만큼이나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었다.

In early Victorian England, no social outlook had deeper roots and wide appeal than that which twentieth-century call paternalism. … It informed social attitudes at all levels of society and expressed itself in countless ways. It was an outlook as diffuse and varied as it was widespread and popular.

(Roberts, 1)

이러한 사회적 형태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산업자본주의자의 출현이었다. 귀족과 소/자작농의 계층에 속하지 않는 중산층은 기계가 가지는 경제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에 시간과 재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이 가져오기 시작한 자본과 기계의 결합은 대량생산이라는 결과물과 자본가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산업의 발달은 사람들을 더 이상 보호/피보호의 관계로 묶어놓지 않았다. 그들은 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들을 유통시킴으로서 경제적 이윤을 얻게 된 중소상인들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영주가 제공하는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산업자본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득권층을 강한 반발을 보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보수정치인이자 소설가였던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소설 『탕크리드』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이 시골사람들이 국민이 아네요. 그 사람들은 군중이고 그 사람들이 매일 매일 부수고 있는 옛날 시스템의 잔해가 남긴 무례한 지역의 원리만을 지키고 있어요.”

The people of this country have ceased to be a nation. They are crowd, and only kept in some rude provisional discipline by the remains of that old system which they are daily destroying. *(Tancred, 52)*

디즈레일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국사회는 귀족의 보호 아래 평민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존의 세계에서, ‘위대한 종속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억누를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반역이었다”(In a world of personal dependency any breach of ‘the great law of subordination’... was a sort of petty treason, to be ruthlessly suppressed)는 변화하는 근대 영국사회에 대한 필킨의 지적은 적절하다. (37)

이러한 사회구조의 해체를 배경으로 걸으로 드러난 현상 중에서 가장 먼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대중의 정치적 참여욕구였다. 흔히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으로 부르는 대중들의 봉기는 걸으로 보기엔 정치적으로 억눌려있던 대중들이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면을 살펴본다면 중세 이래 영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존재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차티스트 운동은 재산과 지위를 근거로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던 귀족에 대한 반감인 동시에 존재의 평등에 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체도의 출현을 앞당긴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이제 왕족, 귀족, 평민과 하층민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칼리일(Thomas Carlyle)은 『과거와 현재』(*Past and Present*)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권력의 추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조직의 도입이다. 어떻게 부가 증가하고 점점 더 부자가 많아지고 있는지, 이상하게 구체제를 변화시키고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는지는 경제학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그 것은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다.

What changes, too, this addition of power is introducing into the Social System: how wealth has more and more increased, and as the same time gathered itself more and more into masses, strangely altering the old relations, and increasing the distanc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ll be a question for Political Economists, and a much more complex and important one than any they have yet engaged with. (65)

이러한 기존의 가치체계의 붕괴 내지 변질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진화론이 자연계 내에서의 인간의 우월적 지위에 의문을 품고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¹⁴⁾처럼 19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도 귀족의 특권에 대한 부정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모습은 사회 내에서 새로운 사회구조의 성장과 구사회 구조의 대체, 의존 혹은 후원의 수직적 연결 대신에 수평적 단결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의 탄생 그리고 19세기 초의 격한 갈등을 지나 빅토리아 시기 중엽의 독자적인 계급사회의 성장이다.

The most important social offsets, ..., are the growth of a new social structure within and its ultimate replacement of the old, the birth of a new society based on the horizontal solidarities of class in place of the old vertical connections of dependency or patronage, and its growth through the violent conflict of its early nineteenth-century adolescence into the viable class society of its mid-Victorian maturity. (Perkin, x)

이러한 의미에서 진화론이 단순히 몇몇 과학자의 발견이라기보다는 근대영국의 시대정신이 과학의 통해 분출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시대를 관통하는 에토스가 항상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근

14) "these elaborately constructed forms ... have all been produced by laws acting around us." (*The Origin of Species*, 459)

대 영국은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근대 영국인들의 뇌리와 생활 속에 편입되고 있는 진화론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⁵⁾.

문학작품은 사회의 현상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속성으로 해서 한 시대의 미시사(微時史)로 부를 만하다. 모든 문학작품이 당시의 사회상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소설은 여타의 문학 장르보다 그 속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특히 근대의 소설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출판했기 때문에 당시의 관심사를 작품 속에서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설 속에서 진화에 관한 생각을 다루는 것은 대체로 수용과 거부의 형태로 나타난다. 진화론의 핵심주장은 생명체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태초에 창조된 대로 불변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국 성경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질서를 위협할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진화론에 반대하는 작가들은 다윈을 희화화하거나 진화론을 조롱하는 현상을 보였다.

디즈레일리는 『탱크레드』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어 진화에 관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조롱한다.

“『폭로』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 모든 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이 발전해온 방식이에요. 아시다시피 모든 게 발전해요. 원리는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지요. 태초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무언가가 나타났죠. 그 다음이 뭔지는 잊었어요. 내 생각에 조개나 물고기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나타났죠. 보자, 우리가 다음이었던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인간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는 인간보다 나은 것이 나타나겠죠, 날개가 달려 있을 겁니다.

15) 본 논문에서는 진화론과 근대영국사회의 관계를 당시에 발표된 산문에 맞추어 조명한다.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는 『진화론과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Evolution and Victorian Culture*)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You must read the “Revelations”; it is all explained. But what is most interesting is the way in which man had been developed. You know, all is development. The principle is perpetually going on. First, there was nothing, then there was something; then, I forget the next. I think there were shells, then fishes; then we came, let me see, did we come next? Never mind that; we came at last. And the next change there will be something very superior to us, something with wings. (Tancred, 113)

정치인이자 소설가였던 디즈레일리는 현실감각인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에게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보수주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화를 통한 사회구조의 변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칼라일 같은 문필가에게도 새로운 세계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는 『과거와 현재』에서 “사회가, 간단히 말하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다. 순수한 악마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Society, in short, is fast falling in pieces; and a time of unmixed evil is come on us)고 말한다.(63). 그들에게 진화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처럼,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구조를 형성해나가는 영국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였다.

반대로 진화에 대한 생각을 지지하는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진화론을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디즈레일리는 『하틀베리에서의 1년, 즉 선거』(A Year in Hartlebury, or the Election)에서 진화론을 생각나게 하는 새로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약속한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게인즈보로 씨! 환경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해요.” (“… The circumstances on which you made your promise are changed. We are all governed circumstances, Mr. Gainborough! Circumstances are too strong for the strongest of us.” (Hartlebury, 149) 『탱크레드』의 주인공이 영국을

떠나 중동으로 이상향을 찾아 떠난 것과 다르게 『하틀베리』의 주인공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영국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¹⁶⁾ 『하틀베리』의 주인공은 근대영국이 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제도의 대두와 기존의 사회질서의 붕괴를 경험하는 것에 발맞추어, 새로운 사회를 지탱하는 철학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다윈의 진화론은 이러한 [기존의] 우주를 폭발시키고 그 자리에 우연이 지배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모습을 가져다 놓았다(Darwinian evolutionary theory explodes this universe, replacing it with a chance-driven, constantly shifting scene of competition)고 언급하는 슈미츠의 지적은 적절하다. (Schmitt, 20)

하지만 진화론에 대한 이러한 찬반론보다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근대영국사회가 진화론을 수용하는 모습이다. 17세기 과학혁명으로 신의 존재가 위협받았을 때 뉴턴의 세계관을 통해 과학과 종교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화론도 종교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킹즐리에서 본다.

성직자인 동시에 과학자이고 또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발표한 작가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킹즐리(C. Kingsley)는 『물속의 아이들』(*Water Babies*)에서 진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Joe)라는 굴뚝청소부 아이가 물에 빠진 후에 생명을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동화¹⁷⁾의 말미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어머니를 만나 생명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¹⁸⁾

생명을 창조한 후 그 생명체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장면은 창조론과 진화론과의 조정으로 보인다. 성직자로서 킹즐

16) 디즈레일리의 태도변화에 관해서는 『벤자민 디즈레일리: 정치학의 로맨스』(*Benjamin Disraeli: The Romance of Politics*)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17) 지금은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로 읽히는 『물속의 아이들』(*The Water Babies*)은 킹즐리가 진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를 위한 동화이다.

18) Kingsley, *The Water Babies* (New York: Penguin, 1995), 273.

리와 과학자로서의 킹즐리는 서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신에 의해 창조된 생명체들이 자연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한다는 진화론을 수용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조정과 화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다윈의 생각을 수용한 이후로, 또 신의 특별한 의지가 없었다면 참새 한 마리도 지상으로 떨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 신의 위대함과 지혜 그리고 영원한 배려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 and it is really, if true, a chapter of special Providence of Him without whom not a sparrow falls to the ground, and whose greatness, wisdom and perpetual care I never understood as I have since I became a convert to Darwin's view. (179-180)

근대영국사회는 안정된 사회구조를 근간으로 중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던 이전의 세계와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 펠킨이 지적하고 있는 것¹⁹⁾처럼 산업혁명이후 근대로 진입한 영국사회는 신분에 의한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사회구조가 허물어지고 직업과 재산을 근거로 한 수평적이고 연립적인 사회구조로 변하게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진화론의 확산과 수용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준 것이다.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의 전환에는 진화론의 주장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맺는 말: 패러다임 시프트

진화론은 단순히 인간의 조상에 관한 과학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연계에서 인간의 위상에 관한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다. 기독교를 문화의 근간

19) Perkin,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London: Ark Paperbacks, 1986), ix.

으로 해서 존재하는 서구사회에서 성경에 나타난 신의 의지는 곧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목표로 신성시되었고 그 것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은 신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만물의 영장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 동시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자연의 만물이 신에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시로 변하는 존재이며 인간 또한 이러한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은 기존의 기독교식 가치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

다윈의 이러한 주장은 그것이 가진 급진적 폭발력으로 해서 상당기간 미발표의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력은 챔버스의 『창조의 흔적』이 익명으로 출판되었을 때 입증되었다. 챔버스의 주장은 신의 존재에 대한 관점보다 다윈의 진화론보다 훨씬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흔적』이 출간되었을 때 그 책이 영국사회에 가져온 논쟁의 여파가 거대했기 때문에 다윈은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종의 기원』의 출간을 예정보다 앞당긴 것은 다윈에게 보내진 윌러스의 편지 한 장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동식물을 채집해서 영국에 판매하던 윌러스는 동남아의 정글을 누비던 중 종이 불변고정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내용을 다윈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다. 일종의 검증을 위해 자신에게 보내진 편지를 읽고 다윈은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자신의 연구가 사장될까 두려워 서둘러 『종의 기원』을 출간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진화에 관한 논의가 19세기 중반, 즉 영국사회가 근대로 깊숙이 진행된 시점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겉으로 드러내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영국사회가 진화론을 강하게 부정하지 않을 만큼 개방성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에는 영국사회가 근대에 이

르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독특한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영국의 시발점에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 한다는 사실, 노동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진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세 이래 지속되었던 고착된 계급구조가 산업자본가의 생성과 발전을 통해 와해되기 시작점이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이라는 사실은, 결국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기존의 가치관이 재편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귀족계급의 서민보호와 서민계층의 귀족계층에의 복종이라는 사회구조는 인간에 대한 신의 각별한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헌신과 궤적을 같이한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구조는 근대이전의 영국사회를 지배하는 도덕률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은 도전에 양보 혹은 타협하면서 기존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진화론은 과학의 분야에서 전통적 가치관에 반기를 든 여러 현상 중의 하나이다. 신이 창조한 종(species)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변이며 인간 또한 존재의 사슬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으로 여겨지던 종교적 가르침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계급질서의 와해와 궤적을 같이 한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만큼 진실한가 하는 것과 별개로 진화론은 근대 영국의 중요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이유이다.

진화론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진실과 별개로 우리가 진화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윈으로 대표되는 진화에 대한 생각이 실은 변화라는 자연계의 상수에 대한 해석이다. 근대이전까지 고착되었던 사회가 변화와 변혁의 바람을 타고 변화가 당연시되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면서 중간계층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두었던 불변의 가치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과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진화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겪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는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자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이론의 도

전적인 주장은 당시의 팽창하는 자본주의와 경제현상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의 패러다임에 균열 내지는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 Carlyle, Thomas. *Thomas Carlyle: Selected Writings*. New York: Penguin, 1988.
- Chambers, Robert. *Vestiges of the Natural History of Creation*.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69.
- Clark, J. W. and T. M. Hughes. *The Life and Letters of the Reverend Adam Sedgwic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Darwin, Charles. *The Origin of Species*. New York: Penguin, 1985.
- _____. *Voyage of the Beagle*. N.Y.: Penguin, 1989.
- _____.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Darwin*. New York: Norton, 1969.
- Darwin, Erasmus. *The Temple of Nature*. London: Jones & Company, 1825.
- Disraeli, Benjamin. *Tacred*. London: Peter Davies, 1927.
- Disraeli, Benjamin and Sarah Benjamin. *A Year at Hartlebury or the Election*. London: John Murray, 1983.
- Greenblatt, Stephen. *Sverve: How the World Became Modern*. London: The Bodley Head, 2011.
- Kingsley, Charles. *The Water Babies*. New York: Penguin, 1995.
- Kingsley, Francis.(ed.) *Charles Kingsley, His Letters and Memories of His Life*. New York: MacMilan, 1903.
- Levine, George. *Darwin the Wri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Lightman, Bernard. 'Science and Culture' in Francis O'Gorman(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ctorian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Lightman, Bernard and Bennett Zon. (ed.) *Evolution and Victorian Culture*.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Lovejoy, Arthur O.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Lyell, Charles. *Principles of Geology I, II, III*.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0.
- Merton, Robert K. *The Sociology of Scienc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3.
- O’Kell, Robert. *Benjamin Disraeli: The Romance of Polit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3.
- Oldroyd, D. R. *Darwinian Impacts: An Introduction to the Darwinian Revolution*. Milton Keynes, UK: The Open University Press, 1980.
- Perkin, Harold.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London: Ark Paperbacks, 1986.
- Roberts, David. *Paternalism in Early Victorian England*.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79.
- Schmitt, Cannon. ‘Evolution and Victorian Fiction’ in Bernard Lightman and Bennett Zon.(ed.) *Evolution and Victorian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Young, Robert. *Darwin’s Metaphor: Nature’s Place in Victorian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Abstract

Evolution and Victorian Society
- The Beginning of Paradigm Shift -

Moon, Sang-Wha*

The articles aim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evolution and modern English society. Though evolution is the theory about changing lives in nature, it can't be denied that the spirit of age affected the building up of the evolution theory. In a word, in spite of the fact that evolution was argued by various natural philosophers, ethos of Victorian Era constructed the basic structure for evolution.

Victorian Society had experienced unprecedented change in the whole history of England. Established social values were threatened by the rising of industrial capitalists arguing that they wanted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social activities. Their arguments seemed to be affected the rising theory of evolution that human society, like the structure of nature, needed to be re-structured.

Key Words : Evolution, Victorian Society, Darwin, Paradigm Shift

<필자소개>

이름 : 문상화

소속 :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전자우편 : smoon@gwangju.ac.kr

논문투고일 : 2020년 2월 4일

심사완료일 : 2020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 2020년 2월 26일

* Gwangju University